

문화광장



박태수 제주국제영상센터

코로나 시대 설맞이

양력설에 이어 음력설이 다가오고 있다. 새해를 맞는 즐거움이 연속돼 좋기도 하지만 번거롭기도 하다. 거기에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가족 간의 만남을 자유롭게 못하게 한다. 이럴 때 3대(조부모·부모·자녀)가 있는 가족은 어떻게 설을 맞이하는 게 좋을까? 우선 필자 가족의 예를 들어 보자. 필자는 3남매를 두었는데, 모두 육지에 있다. 큰 딸의 가족은 시집에서 구경을 보내니까 방학 때 오기로 했다. 특별히 날짜를 잡지 않아도 된다. 다만 큰 아들과 둘째 아

들네 가족은 순위를 정했다. 아무래도 구경이 명절다운이가 큰 아들에게 우선권을 줬다. 그래도 지난해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올해는 둘째네 가족이 오기로 했다. 만남은 이렇게 정했는데, 만나서 어떻게 보내야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명절을 보낸다고 할 수 있을까? 올해는 가족이 각자 금년도 계획을 나누는 기회로 정했다. 사실 그 동안 가족이 모여도 세배를 하고, 먹고 노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집집마다 다르기는 하나 필자의 가족은 함께 어울리는 것으로 웃음을 했다. 3대가 함께 어울려 웃을 던지고 웃말을 놓고, 그러면서 웃말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우기기도 하며 흥겹게 놀았다. 그런데 코로나 시

대에는 웬지 떠들고 어울리는 것이 걸맞지 않은 것 같아서 가족끼리 집단상담을 하기로 했다. 집단상담에서는 집단 시작 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변화돼야 할 목표를 내놓고 상담과정에서 그것들을 다룬 뒤 마지막으로 시작 때 내 놓은 목표가 어느 정도 도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렇듯이 설 때도 가족들이 올해의 목표를 제시하고 일 년 내내 살아보고 난 뒤 다음 해 설날 만나서 지난 해 계획했던 일을 확인하고 그해 계획을 또 나누면 된다. 그 방법으로 명절날 아침 조상에 차례를 모시고 음복을 나눈 뒤 둘러앉는다. 각자 금년에 세운 계획을 내놓는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지,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지 서로 나누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으로써 나와 가족의 한 해 삶의 계획을 가슴으로 느껴보는 것이다. 참여하지 못한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작년의 경우 둘째네 가족은 동영상으로 세배를 하고 올해의 꿈은 무엇인지, 그 꿈은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를 물어서 서로를 나눴다. 큰 아들에 가족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 덜 만족스럽기는 해도 국가의 코로나 방역에도 동참하는 셈이어서 다행스럽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내 가족만은 함께 해야 한다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방역에 소홀하여 가족조차도 못 만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설

해저터널 재부상, 찬·반 의견 제대로 알자

해저터널사업이 재부상했다. 선거 후보자들이 거론하자 여러 매체서 빅 뉴스로 다루고 있다. 수 년전 전남서 꺼낸 해저터널 사업은 제주의 반대 의견으로 유야무야된 이슈다. 해저터널 재부상은 제2공항사업 '표류'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는다. 말도 있다. 현 시점에서 왜 해저터널 찬·반인지 구체적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필요성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탄소제로 지향 사회서 비행기의 화석연료 사용이 과다한 현실을 감안, 국내 항공수요 최대지역인 제주를 해저터널로 고속철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행기 운항편수만 늘리는 방식을 지양하자는 얘기다. 장정에 도지사선거 출마자도 러시아 유럽까지 잇는 유럽횡단 철도의 기점을 제주

로 만들자는 의견을 냈다. 해저터널사업은 2007년 전남·제주 도지사간 '대정부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했지만 원희룡 전 도정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관심사서 멀어졌다 다시 이슈화된 것이다. 찬·반 의견은 분분하다. 찬성 측은 새 교통수단으로 고속성장, 산업구조 다각화·불류혁신, 폭설·태풍시 도민 물나들이 등을 든다. 반대측은 섬의 정체성 훼손, 관광업 타격,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다. 찬·반의견은 다를 수 있다. 핵심은 찬·반 의견이 '사실'에 부합하고 있는지, 허접과 맹정은 없는지 제대로 살필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저터널 이슈 부상이 바로 사업 정당성으로 이어질 순 없다. 제2공항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상황서 해저터널 찬·반 의견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

열린마당

공사장 화재예방 두 가지 약속



전민식 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공사장 불시점검을 하다 보면 가연성 건축자재를 건설현장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스티로폼 단열재 및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며 연소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 첫째, 가연성 물질은 이동 조치하거나 방화패드로 덮자. 둘째, 가연성 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은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

증기가 발생하는 도장 작업과 분리해야 한다. 특히 용접 작업 시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화 등을 갖춰야 한다. 둘째,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후 작업을 시행하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2' 의거 용접·용단 작업장에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작업자의 대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주가 화재감시자를 미배치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사현장 근로자 모두가 동참할 때 한발 더 나아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한고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서부중' 신설 빠듯한 일정... 순항할까

재심의 결과 '조건부 수용' 통과 ○...제주시 외도동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가칭)서부중학교 설립 사업이 최근 시설결정을 위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되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시설결정 절차가 당초 제주교육당국의 목표 시점(지난해 2월 마무리)에서 1년 가까이 지연되며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남은 일정이 빠듯해 도교육청이 목표하는 2024년 3월 개교를 위한 선 추후 절차(토지매입, 설계역역, 공사)들의 순항 여부가 관건. 특히 당장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가 과제로 떠오르면서 도교육청은 시급한 상황인만큼 기간을 단축해 오는 4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한다는 계획. 오은지기자

유해동물 포획신청 비대면 전환 ○...서귀포시가 농작물 피해 농가에서 신청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을 올해부터 대면 신청에서 비대면 신청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 시는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 기존 서류처리기간이 4~5일 가량 걸리는 점,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와 협의 후 지침을 변경하고, 농가의 피해 접수사항을 즉각 문자·전화로 대리포획단에 통보해 현장에서의 포획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월 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야생멧돼지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언. 백규탁기자

인력난에 생산비 늘어 농사짓기 힘들다

농민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일까. 평상시 단골매뉴가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전국의 농업인들이 농업경영 위협요소로 일손 부족과 농업생산비 증가를 지적한 것이 다. 인력난으로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되레 떨어지니 생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제주를 포함해 전국 농업인과 도시민 254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인식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농촌의 역할 중 특히 중요한 기능에 대해 농업인(49.0%)과 도시민(39.3%) 모두 '식량 생산'을 들었다. 농업경영의 주된 위협요소(복수 응답)로 농업인들은 '일손 부족'(58.0%)과 '농업생산비 증가'(5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이들 항목은 전년 조사 때보다 각각 11.3%p, 15.0%p 증가해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제주의 실상만 봐도 알 수 있잖은가. 이미 농촌의 인력난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인건비가 뛰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한 인력을 제때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기 일쑤다. 농업생산비가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하면 애써 키운 작물이 제값을 받기는 커녕 산지에서 폐기된다. 농사가 잘 되면 가격이 폭락하는 '풍년역설'을 맞는다. 지역 양배추와 당근이 그런 신세다. 인건비는 오르는데 농업소득은 쪼그라드니 경영비가 늘어나는 것이다. 농민들의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이유다. 그렇다고 농업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망 김경남 (1930. 6. 17. 생)
최후주소: 제주시 광양13길 12-14, 1층(이도이동)
상기자는 2021년 11월 26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2년 1월 19일 제주지방법원 2021년단60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상속한정승인 공고
성명: 망 고영립 (1977. 3. 3. 생)
최후주소: 제주시 화성북로2길 12, 107동 601호 (화북일동, 삼화원시아파트)
상기자는 2021년 10월 1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2년 1월 19일 제주지방법원 2021년단61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대조품종(검질이 쉽게 벗겨진다.)
(FTA)기금 우량 품종 갱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감귤묘목 분양
만감류
원터프린스 1년생
카라향 1년생
천혜향 1년생
한라봉 1년생
미니향 2년생
제라몬2년생
하귤(아마나스)1~4년생
극조생 & 조생
궁전조생 1~3년생
하례조생 1년생
오하라베니와세(궁전변이지) 1년생
포트묘목
유라조생, 원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외
탱자묘목
민성종묘
농장: 강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외
농산물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010-3694-5423 / 010-8948-1082

상속한정승인 공고
성명: 망 우영심 (1962. 11. 25. 생)
최후주소: 제주시 동문로21길 12, 가동 2층 202호 (건일동, 우정주택)
상기자는 2021년 10월 3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2년 1월 19일 제주지방법원 2021년단107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